

여야 예산안 격돌 '감세'가 쟁점

상임위별 심사 착수...FTA 등 맞물려 신경전

국회가 11월 283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세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버리는 핵심 법안을 민주당이 '악법'으로 규정할 점도 관건이다.

이들 법안이 예산안과 연계될 경우 여야간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문제로 개의 예정시간인 오전 10시에 열리지는 못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했다.

민주당은 의회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선(先)비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이어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회투쟁을 보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날까지만 해도 '12월 공청회 직후 상정'이라는 감수를 뒀던 한나라당은 이날 '강행처리 배제' 가능성을 시사,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일단 남겨뒀다.

또,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기초로 잡은 재정지출 및 감세의 동시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신경

전이 벌어졌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 강경진압 논란이 재연됐다.

경찰의 물포 확충 등 시위 진압장비 구매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 한나라당 이병래 의원은 "현재 경찰이 시위진압용 물포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상황 발생시 현

규모로는 대응이 곤란하다"며 진압장비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촛불시위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물포를 4대 확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4억8천만원을 들여 첨단 채증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초상권 논란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 방안'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루졌다.

7일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의장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부 제출 세입·세출안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종부세, 13일 '생사 기로'

현재 결정 임박... 위험 땀 환급 대란 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종부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정부의 개편안을 통해 사실상 '사형'이 구형된 상태인 만큼 현재의 판단에 따라 아예 그 운명이 다하거나, 틀만 남은 채 유명무실해지거나, 아니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되살아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로, 이중 하나만 위험 결정이 내려져도 정부의 개편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쪽을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인별 합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도 추가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가 쟁점 가운데 일부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종부세는 간판은 유지하지만 법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위헌의 범위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세대별 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전체 종부세는 아니더라도 세대 합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

더라도 일단 25일로 예정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기존 종부세법에 따라 하위 추후 국제법이 직권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반영한 새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그동안 거둔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올해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도 취소된다.

마지막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 조치에 따라 구체 여부 결정된다.

연합뉴스

"서민 대출 해결방안 연내 강구"

李 대통령 각의 주재... "지방 경쟁력 갖도록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어려운 서민들이 은행에서 단돈 200만~300만원을 대출 받는 게 더 어려워졌는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연내에 강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에 판단하는 것

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히려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 방침을 오히려 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인 만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예결위 공청회, 세입·세출 타당성 논쟁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안의 타당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발제자들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감세 정책과 관련,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많은 연구결과는 재정지출보다 감세

확대가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감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감세에 방점을 뒀지만 김유찬 결실원 재정경제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어느 개별 분야에서도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에서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4%에 대해서는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상현 한국재정학회 이사는 "정부의 2009년 성장

률 전망치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실질성장률이 4%를 밑돌 경우 세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만큼 중장기 운용계획을 재수립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적자재정을 운영하다 2~3년 지나 경기가 좀 안정된다고 해서 그걸 줄일 수 있겠느냐. 줄이면 또 다른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며 중장기 운용계획의 재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아바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view.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광주 (대)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단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최저 수강 등록비" 주부반·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간반·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접인용을 위한 교육보험 발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점원 ☎ 971-0002 (주)비이비 빌딩 4F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10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처음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비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무료

교육보험제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529-8111

학창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지금도 지혜로운 많은 수험생들은 47년 전통의 무등을 찾고 있다 (청강환영)=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행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견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시행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시험 0,000명 7~9급 지방직 5월 하순 시행

※09년 1월1일 이후 부터 실시 상한 연임이 폐지된다.

개강 11월 7일(주 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美·圖) 무료포함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실함.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